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말라기서 강해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죄 가운데는 불신앙의 죄도 무섭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는 더욱 큰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천대하고 바르게 대접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성직자의 죄

(말라기 1:6-14)

하나님이 정해주신 도를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제물과 제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지도자 가운데도 공의를 행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마 23:24)라고 책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는 사사로운 것을 세밀히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큰 죄를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반'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1. 불경의 죄

(1) 거짓된 제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6절).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제물은 속으로는 바칠 마음 이 없으면서 명목상 바친 까닭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세금처럼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하나님을 섬습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은 성직자나 종교지도자에게 큰 죄입니다.

2. 제단을 무시한 죄

“여호와와 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12절).

제사장이 깨끗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깨끗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불경스럽고 더러우면 하나님의 교회도 더러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생각 까닭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고 탄식합니다(롬 2:24).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제단이 더러워졌다고 하며 제단을 흠으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식탁이 더러워졌고, 하나님의 제단이 더러워졌다고 책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 것인 냥 마구 쓰다가 찌꺼기를 드리면서 이름까지 대문짝만하게 쓰며 생색을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의 제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3. 제사장의 직분을 경멸한 죄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13절).

제사장들의 직분을 경멸한다면 제사장 자신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흠친 것, 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쓰레기통에나 버려야 할 것을 들고 온 것입니다. 진실한 제물은 쓰다가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절제하고 희생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는 불신앙의 죄도 무섭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는 더욱 큰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천대하고 바르게 대접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2) 죄가 묻은 제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7절).
더러운 떡이란 죄가 묻은 제물을 말합니다. 제물을 바치기는 바치되 죄로 묻혀진 떡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1966년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복음화대회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제단을 성결케 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특별히 개신교가 하나님의 제단을 무시했다고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다음의 일곱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 ① 구원받지 못한 설교자는 제단에 서지 말라
- ②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설교자는 설교하지 말라
- ③ 경건생활이 결여된 자는 설교하지 말라
- ④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 전달자는 제단에 서지 말라
- ⑤ 사회적인 문제에 무관심한 설교자는 회개하라
- ⑥ 전도할 의사가 없는 설교자는 입을 다물라
- ⑦ 분열을 조장하는 설교자는 물러가라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단에 서지 말며 눈먼 것, 저는 것, 하나님이 도무지 받으실 수 없는 것을 바치면서 ‘골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철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턱수염을 뽑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부지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를 찬양하고 높이 높이 공경해야 합니다.

자기를 향해서는 한없이 절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아가페타운 용도 변경

- 9월1일(월) 허가예정 -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던 아가페타운 부지의 '용도 변경' 허가가 드디어 내일(9월1일, 월) 관할 청인 가평군청으로부터 나올 예정이다.

아가페타운 부지는 8월26일(화) 국토 관리청의 허가를 마치고 가평군청으로부터 '복지시설'로 9월1일(월) 용도 변경 허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용도변경 허가를 득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아가페타운을 세우는 본공사를 시작하게 되며 '이웃사랑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2008 열린바자' 개장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앞으로 성도들의 더욱 깊은 기도와 헌신이 요청된다.

이웃사랑 ·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2008 열린 바자 개장!

- 9월4일(목) 오전 10시 개장예배 -

한 가정에서 한 품목 이상 기증(一家一品) 한 가정에서 한 품목 이상 구매(一家一買) 한 가정 이상 초대(一家招待)

이웃사랑 ·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2008 열린바자가 9월4일(목) 오전 10시 교회 정문 앞마당에서 개장예배를 시작으로 이틀간 열린다.

우리 서울교회는 매년 의미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웃주민과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여 왔다.

이번 바자는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 기도하며 찾고 있던 아가페타운(사랑의 마을) 부지와 건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힘써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아가페타운 건축에 한 장의 벽돌이 되

고자 하는 심정으로 한 가정에서 한 품목 이상을 기증하고, 한 가정에서 한 품목 이상을 구매하며, 한 가정에서 한 가정 이상을 초대하여 진정한 섬김과 전도의 장이 되도록 대회장 이종윤 목사는 부탁의 말씀을 하였다.

바자는 이틀간 계속되며 성도들이 기증하는 각종 물품은 사무국에서 접수 하고 있다.

교구별, 다락방별로 하나 되고 한마음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돌리시길 바란다.

2008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3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9월을 맞아 2008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과 3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다락방 모임이 일제히 시작된다.

2008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은 오늘 11기 결혼예비학교를 시작으로 10주간 동안 각 프로그램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오늘 주보에 간지로 삽입된 열린프로그램 안내 브로슈어와 신청서를 자세히 보고 본인의 일정을 조정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하기 바란다. 열린프로그램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또한 전도학교 제34기도 오늘(8월31일) 오후 1시30

분 903호에서 개강한다. 전도의 이론과 실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습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9월8일(월)부터는 3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현대사회와 복지목회'를 주제로 10주간의 학사일정을 진행한다. 1교시는 지난 학기에 이어 이종윤 목사의 '마태복음연구'가 계속되며 2교시는 주제별로 10명의 복지관계 전문가들의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에 신청하기 바란다.

파송예정 선교사 오늘부터 목회동역 시작

금년 11월 23일 파송예정인 선교사들이 오늘부터 교역자들과 함께 서울교회에서 목회동역을 시작한다. 선교사들은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심방과 교회 내의 각 교회학교와 기관들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서울교회 가족 됨을 확인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 기도 동

역자를 얻는다.

파송예정 선교사는 손신일/민애라 선교사(체코, 권혁정/조경인 선교사(중국), 서광종/이성일 선교사(인도네시아) 등 6명이며, 서광종/이성일 선교사는 파송식 이후 12월부터 목회동역을 시작하게 된다.

2008 성경암송대회

10월19일(주) 교회학교별 예선

10월24일(금) 본선

범위:베드로전서 전장

2008년 성경암송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성경암송대회 범위는 베드로전서(1-5장) 전장이며 10월19일(주) 각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갖고 여기서 선발된 이들이 10월24일(금) 열리는 본선에 참여하여 선의 경쟁을 하게 된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경말씀을 암송하며 본인도 은혜 받고 교회에도 영광이 되는 2008 성경암송대회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다락방 개학 9월 12일

9월 5일(금)에는 열린 바자 참여

한여름 무더위 기간에 잠시 방학을 하였던 다락방 모임이 9월 12일(금) 개학한다. 이에 앞서 9월 5일(금)에는 열린 바자에 모든 교구 식구들이 동참하게 되며, 다락방장 성경공부는 9월 10일(수) 1,2부 수요일예배 후 모인다.

성경대학 9월 4, 5일 저녁강의 휴강

제24학기 서울성경대학 9월4일 오후 7시30분 예레미야반(강사: 한상은 목사)과 9월5일 오후 7시 English Bible Study반(강사: Joshua Cho 목사)은 열린 바자 관계로 양일간 휴강하고 그 다음 주인 9월11일과 12일에 각각 개강한다.

피택자 교육 재개

9월 6일(토) 오전 6시

피택집사 및 피택권사 2차 교육이 9월6일(토) 오전 6시에 501호와 602호에서 각각 개강한다. 피택자들은 주일찬양예배와 수요일예배 등 공예배에 필히 참석하여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과제로 주어진 10명 이상 전도 혹은 전도학교 수료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한국장로교신학회 13회 학술발표회

9월 6일(토) 오후2시 501호

한국장로교신학회(회장 이종윤 목사)의 학술발표회가 9월6일(토) 오후2시 501호에서 열린다. 이번에 열리는 학술발표회의 주제는 '신학교육과 한국 장로교회의 연합'이며 장로교에 속한 모든 교단의 신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발표하게 된다.

서울교회 바자의 어제와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

- 이 땅의 장애우들에게 교육을 선물하세요

아가페타운에 벽돌 한 장 올려주세요 -



우리 교회는 1992년부터 줄곧 '모임과 나눔의 장', '열린 바자'라는 이름으로 바자회를 열어왔다. 성도들 사이에 활용 가능하나 쓰지 않고 있는 물건,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요긴하게 쓰일 물건들을 한 곳에 모으고 나누는 바자회는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전 운동에 작게나마 동참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여기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새 예배당 건축이나 전도, 불우 이웃돕기를 하는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우리 교회 바자의 시발점은 1992년 10월 21일 수요 1부 예배 후 개최하였던 루디아 1,2 여전도회의 '사랑의 바자회'였다. 이때 식품류와 의류, 신발류 등의 품목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군복음화를 위해 교회 자매부대인 등대교회에 건축현금으로 지원했다.

이 바자회를 시범으로 삼아 1993년에는 청년부(회장 이성철)에서 주최 하여 '모임과 나눔의 장'을 열었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청년들이 발벗고나서자 서울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모임과 나눔의 장을 열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이후 서울교회는 매년 바자회를 열어왔다.

1995년 교회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는 새 예배당 건축과 농어촌 자매교회 지원을 위해 '열린 바자'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바자회를 열었다. '모임과 나눔의 장'이 중고물품을 교환하기 위한 성격이 짙었다면 '열린 바자'는 새 예배당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수익 확보의 성격을 띠었다. 1996 바자에서는 특히 우리교회와 자매관계에 있는 농어촌 자매교회에서 각종 농수산물을 산지 직송으로 풍성함이 더했다. 1997년에는 교구별로 1억원 가량의 목표액을 정



하고 수익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 끝에 토지나 증권, 귀금속류, 회원권을 제외하고도 7억원에 가까운 놀라운 수익금을 올릴 수 있었다.

1998년 IMF 구제금융 한파로 나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는 이해에 2번에 걸친 바자회를 열었다. 한 번은 1998년 7월 9일 당시 우리교회가 개최했던 서울시민대학 창업과정 세미나 수료자들을 위한 '모임과 나눔의 장'이었고, 또 하나는 새



- 이종운 목사 저서 사인 판매회 - 9.5(금) 오후 2시~4시

- 상품경매 코너 개설 - 9.4(목)~5(금) 오후 3시부터 한티공원

- 아름다운 세상만들기(나눔 카페) - 9.4(목)~5(금) 104호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였다. 특히 서울시민대학은 이 당시 실직자들이나 명예퇴직자를 위해 우리 교회가 개설한 무료세미나였는데 이 세미나 수료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모아 연 '모임과 나눔의 장'은 여느 해 보다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다.

설립 이래 10번째 바자회인 2000년 바자회는 9월 6일부터 3일간 반포동 교회당에서 열렸다. 교회는 새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마지막 정성을 모아 10억 원을 목표

바리스타 최지옥 성도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9월 4일(목)~5일(금) 104호 나눔 카페

로하여 8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금을 거두었다.

2001년 새 예배당에서 갖게 된 첫 번째 바자회는 '이웃돕기 사랑의 바자'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그 간 '열린 바자'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구와 부서별로 개성 넘치는 메뉴와 정성껏 손질하고 준비한 물품들이 해마다 화제가 되었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음악회, 위임 목사의 저서 사인 판매 등의 이벤트도 바자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른 아침부터 천막을 세우고 교회 정문부터 8층 만나 홀까지 각종 먹거리와 생활용품, 가전용품 등 다양한 물품들이 진열되어 '서울마트'로 변신한 바자장과, 비지빔을 흘리며 수고하는 애쓰는 성도들의 정성스런 모습은 늘 서울교회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하고 실천하는 은혜의 장이었다. 바쁜 가운데에도 잠깐이라도 일손을 거들기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교회로 향하던 남자 성도들과 청년들의 활약도 서울교회 바자만의 진풍경이다.

2008년 '열린 바자'는 특별히 '아가페 타운' 건립을 위해 총력을 모으게 되며, 바자위원회는 일가일품 기증, 일가일품 매입을 모토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바자에서는 일부 기증 품목에 한해 경매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 성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다양한 나눔거리와 풍성한 먹거리장터가 준비되어 있다. 경매품은 사무국과 교구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시는 분마다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시기 바란다.

나소정 (편집국)



민약한 자구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홍성주 장로
(아가페타운 건축위원)

올 여름은 무던히도 더웠지만 우리 서울교회성도님들의 아가페 타운을 향한 발걸음과 기도는 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활기차게 계속되었습니다.



하게 보냈습니다.

공사가 완전하지 않아 불편함이 없지 않았지만 사랑과 칭찬으로 서로를 격려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임목사님과 오정수장로님, 하인선장로님, 이동귀집사님일행은 복지의 선진국이라는 유럽의 복지시설을 탐방하고 아가페타운 건설에

7월7일 아가페타운 리모델링 감사예배를 신호탄으로 시작된 서울교회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는 7월11일 디아스포라부를 시작으로 8월15일 장로가족수련회까지 이어지며 조용하던 아가페타운을 생명의 활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도 분주했습니다. 자녀들의 수련활동을 돕고자 발 벗고 나서 식사를 준비하며 주방 일로 헌신하신 학부모들, 휴가를 반납하고 학생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신 선생님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이 어우러져 무더운 여름을 시원

필요한 많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돌아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기초로 이제 본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일에 착수하러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가페타운 건설에 도움을 주실 각 방면의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조직하고자 합니다. 헌신된 마음으로 자문에 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국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Holy Home Set !

노창훈, 이화용 가정
(신혼가정부)



대한민국의 가정이 위기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부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아 이혼율이 세계 최정상 급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위기를 예방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단 한가지의 해결책, 우리 신혼가정부에서는 그 해답을 바로 '가정예배'에서 찾았습니다. 지난 8월15,16일 양일간 아가페타운에서는 가정예배의 회복을 통해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자는 취지아래 'Holy Home Set'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혼가정부의 여름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연후의 교통체증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교제에 갈급한, 풋풋한 신혼 13가정이 모여 이종운 목사님의 특강과 신혼가정부 지도목사님이신 이규정 목사님의 성막 강의를 통해 말씀의 귀한 은혜를

체험했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모여 이룬 각 가정의 기도제목을 깊이 나누며 서로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크리스찬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가페타운 근처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에서 가졌던 새벽 Q.T를 통해 우리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말씀의 반석위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의 선배님들 말씀처럼 신혼의 단꿈은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 가정예배 드리는 신혼가정의 아름다움은 대를 이어 지속될 것입니다. 신혼이신가요? 말씀과 함께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신혼가정부로 당신의 가정을 초대합니다.

Holy Home Set !!

특별찬양

오늘저녁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17.18 세기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음악에서 많이 사용되던 리코더연주로 찬양을 드린다. 비발디, 바하, 헨델 등이 즐겨 사용한 이 악기는 20세기 초부터 유럽에서 고음악의 가치를 재인식 하면서 점점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초등학교에서 교육용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다.

오늘은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 고음악과에 재학 중인 권민석 선생의 리코더와 가브리엘 찬양대 소프라노 솔리스트 신유경 선생, 그리고 박준호 선생의 오르간 반주로 이영조 음악감독이 편곡한 "성자의 귀한 몸"의 2 곡으로 찬양 드린다.

동정

■ 이종운 9월1일(월) 93회 총회(서울강남노회) 총대모임에서 설교한다. 6일(토) 한국장로교신학회 13회 학술 발표회 개최에 배설교를 한다.

■ 임주: 김상철 장로(3교구) : 미래하우스(미래한국신문, 미래연구원, 북한구원운동) 경기도 파주시 문발리 522-3 파주출판도시 내 Tel. 031)955-4174

■ 이영조 집사(12교구, 음악감독) 9월1일부로 국립예술영재교육원 초대원장으로 취임 T. 746-9596

■ 개업예배 : 박상훈 집사(3교구) 9월 6일(토) 12시 30분 강남구 역삼동 823-1 품림빌딩 7층 법무법인 한별

■ 전화번호변경 : 이규정 목사 010-9061-7161

■ 주간식당 봉사 : 제2스데반회(8.31) 제1권사회(9.7)

■ 금주의 식사 : 조정식 장로 김영식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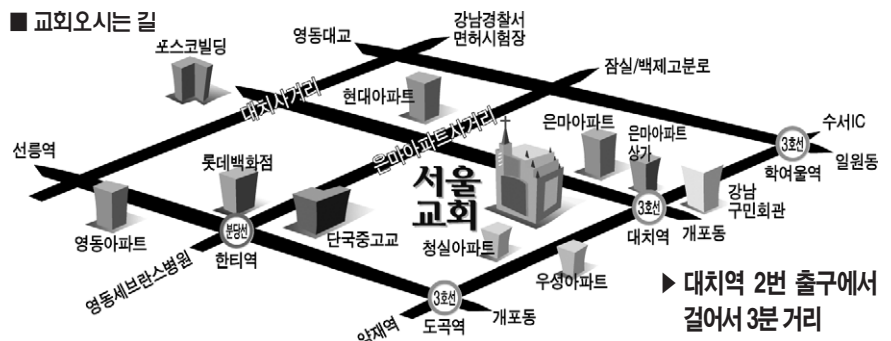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이웃사랑 ·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열린바자가 은혜롭게
2. 서울성경대학 · 주부대학 · 경로대학 등 각종 열린프로그램들 열매가 풍성하도록
3. 3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다락방 모임 개강에 성령의 인도하심 있기를
4.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